

# 문화 과학

문화이론전문지

Newsletter

n. 09 | 2015년 06월호

## 계간 『문화/과학』 82호 〈신자유주의 대학〉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82호 특집 “신자유주의 대학”의 첫 번째 글인 이동연의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사회적 재생산」은 최근 논란을 야기한 중앙대학교의 학과 구조조정을 신자유주의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면서,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대학의 서열 상승을 바라는 재단-교수-학생의 공모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것이 출구전략이 불가능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가분의 글 「대학기업화 시대의 종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대학기업화 시대의 종언’을 역설적으로 표명하면서 대학 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대응에 주목한 후, 사립대학의 기업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대학 내부 구성원의 자치역량에 기초한 민주적·사회적 통제의 법적·제도적 보장 속에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찬호의 글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무관심의 양가적 인성체제를 갖춘 현 시기 대학생(20대 포괄)의 자화상을 취업에 요구되는 엄청난 스펙의 수위 및 ‘달관세대’ 답론 속에서 포착하면서 온전한 비판의 방향이 이들을 양산해낸 사회로 향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토모츠네 츠토무(友常 勉)의 「대학·학생의 채무화와 스튜던티피케이션」은 일본정부를 통해 취해진 일련의 대학개혁안들이 일본을 둘러싼 위기적 상황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대학과 학생의 차이를 불균등성 하에 재편하고 이들을 채무화하여 중국에는 국민모두를 채무의 굴레로 노예화하

는 것이라 진단한다. 이상룡의 글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는 지위 보장을 위해 끊임 없이 자신의 인적자본을 개발해야 하는 대학 교원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편된 대학 교원의 고용과정을 살펴본 후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성격, 특히 인문학을 겨냥한 구조조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임재홍의 글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는 종래의 자치구조에서 자본과 국가의 관료적 지배로 종속된 상황을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라 지칭하면서,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로 변질된 동기와 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수용,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적 논리를 논의하고 있다. 지루(H. Giroux)의 「신자유주의 대학에 대항하는 공공 지식인들」은 현 시기 대학에서 기술자 혹은 지원금 신청 집필자로 전락한 교수, 소비자로 취급받는...(이야기 더보기)

편집위원 칼럼



정정훈 편집위원 일곡  
유인호 학술상 수상

정정훈의 『인권과 인권들』에 대한 심사평

최원(건국대학교 HK 연구교수)

2015년도 일곡 유인호 학술상의 명예를 거머쥔 정정훈의 『인권과 인권들』은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인권에 대한 정치철학적 저서 가운데 이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이론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권에 기초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실천들, 곧 ‘인권운동’의 급진적이면서도 동시에 실효성 있는 새로운 양태를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전개하는 매우 보기 드문 역작이다.

이 저서는 인권 담론이 현재 처해있는 ‘위기’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서(1장), 프랑스 대혁명(또는 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권 운동의 장구한 역사 및 인권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의 역사를 믿을 수 없이 해박한 ..(더보기)



# 공동(空洞)의 문학(1)

텅 빈 건물에 머물며 매일 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쓸모를 잃어버린 대상의 쓸모를 깨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

By 김대성(문학평론가)

텅 빈 건물을 지키는 관리인이 있다. 그가 하는 일이란 중단되었던 재개발이 시행될 때까지 건물을 텅 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거지 연립’이라 불리는 그 건물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으나 관리인은 매일 밤 건물의 모든 문을 두드리고 열어본다. 이전부터 닫힌 뚜껑과 상자를 열어보는 것을 두려워해왔다는 관리인의 이력이 매일 밤 건물의 닫힌 문을 두드려 확인하는 이유인 것은 아니다. 밤마다 어김없이 불안한 예감에 휩싸이며 급기야 건물 어딘가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명 소리까지 듣는 관리인의 강박, 혹은 신경쇠약이 내겐 지금 이 순간에도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를 은유하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 아무도 없는 건물에 상주하며 매일 밤 닫힌 문을 두드리고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텅 빈 세계에서 불침번을 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보운의 소설 『안절부절 모기씨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 2014)의 이 같은 서사축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텅 빈 건물을 바장이며 닫힌 곳을 두드리는 관리인의 행위가 ‘관(棺)’으로 기우는 세계를 ‘문(門)’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애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쓸모를 잃어버린 텅 빈 건물이 죽음의 장소로 침몰하지 않도록 매일 밤 두드리는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곳이 단박에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테지만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보이는 그 무용의 행위의 반복이 명멸(明滅) ... (더보기)

## 문화과학 월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정기구독제를 월 후원회원으로 전환합니다.

『문화/과학』은 71호부터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편집위원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편집체제로 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독자들의 외연의 폭을 넓히려는 대중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계간 『문화/과학』은 정기구독제에서 월 후원제도로 전환하여 출판 재정을 안정화하

고 다양한 독자 서비스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문화/과학』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문화이론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쿡방’은 무엇을 요리하는가

쿡방의 인기는 요리연구가에서 셰프로의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쿡방의 인기는 그것이 사실은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 엔터테인먼트의 기본 성격은 판타지다.

By 문강형준(문화평론가)



‘떡방’의 인기와 더불어 생긴 ‘쿡방’은 ‘떡방’의 변주다. ‘떡방’이 음식을 먹는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쿡방’은 그 음식을 만드는 상황에 집중한다. 예전에도 ‘요리 프로그램’은 고정적으로 편성되었다. 요리 연구자들이 나와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영양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의 ‘쿡방’은 과거의 요리 프로그램과 다르다. ‘요리 연구가’라는 어정쩡한 명칭은 ‘셰프’라는 전문가적 명칭으로 바뀌었다. 요리 연구가가 대체로 40-60대의 여성이었다면, 셰프는 대개 30-40대의 젊은 남성이다. 요리 프로그램이 음식의 조리과정과 영양과 식단에 집중되는 일종의 ‘교양’이었다면, 쿡방은 연예인 MC의 사회와 흥겨운 음

악과 토크와 웃음과 게임이 모두 버무려진 ‘엔터테인먼트’이다.

요리 프로그램을 대체한 쿡방의 인기는 요리라는 문화적 영역에서의 변화들과 맞물려 있다. 과거의 요리는 여성들의 ‘살림’ 영역이었다. 요리 연구가가 ‘엄마’를 환기시키는 여성이었던 것은 이를 보여준다. 쿡방에 등장하는 젊은 남자 셰프는 이제 요리가 사적 영역을 넘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요리 연구자들이 한식 전통을 이어받는 ‘승계자’였다면, 현재의 ‘셰프’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유명 요리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 체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자 ‘사업가’이다. ....(더보기)

## 편집위원 칼럼

존귀하지도, 비루하지도 않은

오혜진

(근현대문화연구원)

올봄에 읽은 한 소설이 남긴 강렬한 장면에 줄곧 사로잡혀 있다. 백화점 침구류 판매직원 여성인 ‘나’의 세계를 묘사한 황정은의 <복경>(〈한국문학〉 2015년 봄호)이다. 이 소설은 우선 우리가 익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직의 감정노동’ 문제를 다룬다. 그 세계는 ‘고객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착각하면 옮겨 되는 것은 나’ 뿐인 세계, ‘판매원과 계산원과 미화원과 조리사’가 서로 중요하는 세계다. 이 작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펼쳐지는 계급적 경험과 파토스를 날카롭게 그려내기로 유명한데, 이 작품도 가까이 그 평에 값한다.

최근 보도된 고객, 재벌가의 ‘갑질’과 ‘진상짓’을 깊이 의식했을 이 소설을 읽고, 나는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한 풍경을 떠올렸다. 처음 그 말이 미디어에 등장해 널리 회자됐을 때, 나는 그것이 지닌 대단히 효율적인 지시성에 놀랐다. 그리고 모종의 통쾌함(?)을 느꼈던 것도 고백해둔다. 그 말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일상다반사로 겪는 고객, 상사 혹은 상부기관이 행하는 폭력과 부당행위의 세목을 나열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언어를 낭비했는가. ‘갑질’이라는 신조어는 그런 수고로움을 없애 ... (더보기)

### 문화연대 소식 보러가기 (클릭)

1. [Forum L]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간의 권리: 예술행동과 예술노동의 권리 (5/27)
2.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 피키캐스트와 뉴스크레이션 (5/28)
3. 박근혜정부와 사법권력의 예술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예술행동 (6/3)
4. ‘세월호 연장전’을 말하다: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는 예술의 자세 (6/5)

## 편집위원 칼럼

## 결그룹의 문화경제학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풍뎅이, 립서비스, 원피스, 7학년반, 베드키즈, 단발머리, 딸기우유, 러블리즈, 그리고 레드벨벳. 이 단어들은 2014년 데뷔한 결그룹의 이름이다. 2014년에 데뷔한 결그룹은 어림잡아 40팀 가까이 된다. 같은 해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이 20여 팀인 점을 감안하면 결그룹의 수는 압도적이다. 이 글을 읽는 30-40대 남성들 중에서 앞서 열거한 결그룹의 이름을 반 이상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부인 몰래, 혹은 가족 몰래 숨죽이며 결그룹 팬질 삼매경에 빠진 '삼촌팬'일 것이다. '소녀시대'의 '지' 열풍 이래 조심스레 형성된 삼촌팬은 '크레용 팝'에 이르러 당당히 커밍아웃하더니, 지금은 '에이핑크', '걸스데이', 'AOA' 등 잘 나가는 결그룹의 전위대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국정원의 슬로건처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케이팝 결그룹의 든든한 정보원들이다. 요즘 결그룹 전성시대는 삼촌팬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보기)



## 2015 맑스코뮤날레 『문화/과학』섹션 참관기

By 강정석(지식순환협동조합 사무국장)

올해 맑스코뮤날레의 주제는 <다른 삶은 가능한가: 마르크스주의와 일상의 변혁>이었다. 맑스주의가 그 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일상의 변혁'을 논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젖은 삶이 아닌 '다른' 삶,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 또한 변혁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인의 삶의 변혁을 위해 '일상'적 삶에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동안의 맑스주의적 논의에서는 일상의 영역을 잘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맑스코뮤날레에서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거시적 담론과 일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다양한 미시적 삶들이 마주치는 지점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진 흥미로운 장이었다. 이번 맑스코뮤날

레에서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대담하게 '대안 사회를 상상하기'라는 주제의 섹션을 마련하였다. 물론, 현재의 사회는 매우 암울하며 어떤 전망을 상상하는 것도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또한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패배주의에 젖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공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현재의 지평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전망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아래, 문화과학 섹션의 전체 사회는 이동연 편집인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영선 편집위원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대안 모색하기」, 강정석 편집위원의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이원재 문화연대 ...(더보기)

연구자료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관광 정책방안 연구\_김향자
2.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 포럼 자료집-경기 서울 인천
3.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_문화계획위원회

# 사랑과 환멸의 대중탕

편집위원 칼럼

혐오의 역설,  
혐오의 귀결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대중목욕탕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만, 독특한 내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모두가 잘 아는 공간이지만, 실상 논리적 파악이 힘들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막상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건 쉽지 않다. 이 네트워크는 최근 들어 에스엔에스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친구와 동료들만의 단체 방의 형태로도 변형되었다.

By 권명아(동아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한국 사회의 미래와 대중 정치에 대한 환멸이 담론 공간을 강하게 채우고 있다. 1960년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 담긴 다소 영웅적인 어조는 환멸에 대한 단절의 태도이기도 했다. 2015년 “껍데기는 가라”는 ‘이놈도 저놈도 마찬가지로’인 세상에 대한 환멸이 되었다.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의 앞을 절대화하는 지적 오만이다.

환멸(disillusion)은 말 그대로 이전에 가졌던 환상이 깨지면서 촉발된다. 환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를 보는 거울이 깨진 데서 비롯된다. 거울이 깨지자 세상도 깨져버린다. 환멸 속에서 ‘나’에게 세계는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끝장은 ‘나’와 ‘나’를 지탱하던 거울의 끝장이다. 그래서 환멸이야말로,

로, 끝장난 ‘나’와 단호하게 이별하고, 다른 세계를 만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알람 신호이다. 그러나 막상 오늘날 환멸은 ‘나’가 아닌 ‘끝장난 대중’에게로 향한다. ‘나’는 환멸 속에서 더욱 고매하게 빛난다.

에스엔에스가 진보 정치를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이 환멸로 이어진 것도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대중이나 대중 미디어에 대한 환멸은 실상 지금까지 대중의 흐름을 파악해온 방법론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근대적인 학문 방법론이 ‘대중’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은 많은 학자가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대중의 흐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른바 대중 네트워크라는 ...(더보기)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혐오’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기계처럼 끊임없이 혐오를 필요로 했다. 분단과 전쟁 이래 지금까지도 ‘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대표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호출된다. 70년대 이후에는 ‘전라도’와 ‘빨갱이’(‘북한’의 변주)가 박정희 및 전두환 독재 정권의 존속을 위해 혐오되어야 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여성과 동성애자, 장애인, 비정규직, 동남아 노동자 등으로 혐오의 대상이 확장되어가는 중이다. 혐오 대상의 변화 및 확장은 각 시대적 국면에서의 지배적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 요컨대 분단과 냉전 체제는 북한을, 독재체제는 전라도와 빨갱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취약하거나 소수인 주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요청한다. 가상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가리는 방식. 여기서 핵심은 혐오의 대상이 사실은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기보다(그 작업엔 ‘끝’이 없을 것이다). 혐오를 ....(더보기)

## [세미나] 대학, 위기의 담론에서 희망의 담론으로

목포대 민교협 · 기간 『문화/과학』 주최 공동세미나

날짜: 6월 11일(목) 15:00~18:00 | 장소: 목포대학교 교수회관 2층 회의실 | 사회: 임춘성(목포대 교수)

기조발제: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_이동연(기간 『문화/과학』 편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패널토론: 류동영(목포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이윤중(동아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정원옥(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강사)/최종명(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추정완(목포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2: 디지털 혁신론과 저널리즘

일반 대중이 따라잡기도 무섭게 기술 현실이 바뀝니다. IT 기자들은 바깥의 급변하는 해외 동향을 셀 새 없이 소개합니다. 평론가들은 변화하는 디지털 현실을 사회 혁신의 코드로 풀이합니다.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자들은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모하라고 요청합니다. 한 방송국은 매년 국외의 젊은 스타트업계 사장님들을 모셔다 국내 혁신의 멘토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생태계 포럼 두 번째 진단은 오늘날 대한민국 뉴스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담론의 실체를 따져 묻습니다. 디지털 혁신론이 어디쯤 머물고 있는지 그것의 명암을 함께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짜: 6월 25일(목) 15:00~17:30 | 장소: 서강대 가브리엘관 강당 | 사회: 원용진 (서강대 교수)

주제발표: "디지털 커먼즈 생태계와 국내 디지털 혁신기수론의 위상" \_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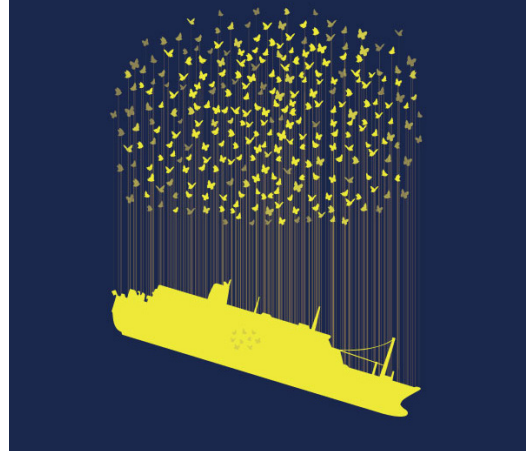
패널토론(예정):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대표)/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손재권 (매일경제신문 기자)/이성규 (블로터미디어랩 랩장)/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문화연대 ·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서강대 문화연구학회 공동주최

## 계간 『문화/과학』 제12회 북클럽

2015년 6월 12일(금) 19시 |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 사회: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문화과학> 편집위원) \* 토론: 후지이 다케시(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강부원(인문학협동조합 대외이사), 정정훈(수유너머N 연구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금요일엔 돌아오렴  
팬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월호를 기록하다



## 동정

### ◆문강형준

○ 5월 30일(토) 10:00~18:00 숙명여대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년 봄 학술대회('재난시대의 슬픔과 애도')에서 발표. 발표 제목은 "재난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 6월 13일(토) 17:00~18:30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서대문문화원' 주관 '2015 테마가 있는 예술기행' 중 '문학의 힘' 섹션 특강. 강연 제목은 "문학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이동연

-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포럼 L>에서 <예술노동과 창작의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
- 6월 19일 <세운포럼> 진행- 세운상가 군 답사와 설계공모 내용 발표
- 6월 24일 서울시교육청 창의인성센터 주최 워크숍 참가
- 7월 1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시도군 공무원 대상으로 <예술의 창의성>에 대해서 특강

## 『문화/과학』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문위원/ 강내희 김세균 손호철 심광현 이득재 임춘성

편집위원/ 강신규 강정석 권경우 권명아 김대성 김성일 김영선 김일림 김정한 노명우 문강형준 박소현 박자영 서동진 서영표

손희정 오창은 오혜진 이광석 이기형 이기훈 이명원 이윤종 이지영 임동근 정원옥 정정훈 조동원 조선령 조형근

주은우 천정환 최영화 최원 최철용

편집인/ 이동연

발행인/ 손자희

편집/ 연구모임 아프폼(디자인: 그래피크제이) | 뉴스레터/ 정원옥 (디자인: 이안홍빈)